

베트남의 앞날 밝아 - 2008년 1인당 GDP 1,000 달러 돌파

베트남은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의 후보지(候補地)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식 폭락, 무역 적자 확대나 인플레이(inflation) 진행 등으로 베트남 경제의 앞날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나 보도도 있기는 하나 “2008년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 國內 總生産)는 6.2% 성장하였으며, 2009년에는 6.5%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현지에서는 어디까지나 자신감이 넘쳐 있다. 어패럴 수출도 %로 두 자리 수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등 앞으로도 생산국으로서 관심을 끌 것 같다.

2009년 1월 초에 일본을 방문한 베트남의 부장관(副長官)에 따르면, 2008년 1인당 GDP는 1,024 달러로 처음으로 1,000 달러를 돌파하였다. 1999년에는 375 달러였는데, 10년을 좀 넘어서 3배 정도로 확대한 것이 된다.

외국으로부터 투자도, 2007년의 203억 달러보다도 3.15배가 되는 640억 달러에 이르며, 일본이 최대 투자국이 되었다. 1986년에 도이모이(刷新) 정책을 선언한 후로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1년 동안 누계 투자액(投資 累計額)은 1,535억 달러나 되는데, 2008년 한해의 투자액이 누계액의 40% 규모가 되었으며, 2007년에 세계 무역 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맹되면서 생긴 투자 붐(投資 boom)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2008년 중간에 2007년 동기보다도 30%를 넘는 소비자 물가 지수(消費者 物價 指數)는 연간 22.97%에 머물렀으며, 12월에는 19.89%로 연말(年末)에 걸쳐서 오히려 진정되었다. 미쓰비시 상사(三菱 商事)의 해외 투자 어드바이저(海外 投資 adviser)는 제트로 하노이 센터(JETRO Hanoi Center)로 출장 근

무하고 있는데, “베트남 경제 상태가 바뀌고 있다고들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어드바이저는 “주식은 2007년 10월의 피크일 때와 비교하면 30%까지 떨어졌는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 주식 시장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규모가 작으며, 하노이와 호치민을 합쳐 약 300개 회사밖에 상장(上場)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무역 수지(貿易 收支) 적자 문제도 그 원인은 제품 수출용 기기나 자재를 수입하는 것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화 준비고(外貨 準備高) 212억 달러를 생각하면 문제는 없다.

인플레(inflation)도, 그 주된 이유는 식품(食品)·식료(食料 : 음식의 재료) 값이 올라 하노이나 호치민 등 대도시에서 유통 혁명이 시작되어, 도매나 중간 도매업이 나타난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하고 베트남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징조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어패럴 수출을 보면, 2007년은 2006년과 비교하면 31% 늘어난 78억 달러, 2008년은 17% 늘어난 91억 달러로 계속 커졌다. 2008년에는 후반에 경기가 떨어져, 목표였던 95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높은 신장률을 유지하였으며, 2009년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본인 업계 상황은, 2008년에 스미토모 상사(住友 商事)가 호치민의 봉제 공장을 크게 증설하였고 이도추 상사(伊藤忠 商事)는 하노이에서 봉제 공장을 사들이는 등 큰 상사의 투자로 활발하다.

이를 뒤에서 밀어 주고 있는 것이 2008년 12월 25일에 체결한 일·월 경제 연휴 협정(日·越 經濟 連携 協定(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인데, 국회 심의를 끝내면 2009년 전반에는 발효될 예정이다. 섬유 제품은 베트남에서 2단계 생산 공정을 거치면 제로 세율(zero 稅率)이 적용되는 등으로 일본

으로 수출에 순풍이 되고 있다.

미쓰비시 어드바이저에 의하면, “미국 수출을 주로 하고 있던 하노이 봉제 공장도 지금은 일본 수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소 로트(小 lot)이면서도 주문이 작고 까다로워서 싫어했는데, 미국 수출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이므로 일본 주문을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베트남을 둘러싼 움직임은 2009년에도 활발할 것 같다.♣